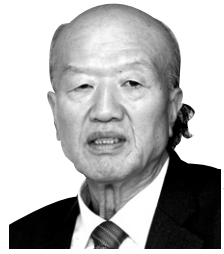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고준환 본각선교원장 경기대 명예교수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마이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어릴 적 흔히 부르는 동요다. ‘시원한 바람’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직을 단일화 약속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격 사퇴했다. 우리나라는 왕검단군께서 동북아대륙에 첫 민족국가 ‘조선’을 세우고, 그 후유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으나, 근대에 일제강점으로 나라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우리 조상들의 자주적 항일투쟁과 국제협조 속에서 기쁘게 8.15해방을 맞았으나, 남북분단, 6.25 민족상잔을 겪으면서도 드디어 ‘민주산업화’에 성공한 세계적 민주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족통일을 이루고,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역사적

‘안철수 바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

도정에 서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열강의 지배체제가 각축을 벌이고,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등으로 국가 기본 민주질서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신이 팽배한 불안사회가 됐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부정부패와 교육, 검찰 권력붕괴, 극심한 민생 고통까지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당 정치염증은 국민들에게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다. 안철수 현상은 곧 ‘바람’이 됐고,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박근혜와 유력 후보인 문재인을 꺾었다. 이런 바람은 1년 남짓 지속됐다. 안철수 후보는 주인공성과 성실한 삶, 진지한 노력, 사회봉사실적, 상당한 내공, 여성성을 포함한 포괄적 인격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정종교는 없으나, ‘종교적(진리추구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국민 후보가 아닌 ‘야권 후보’로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섰다, 스스로 ‘후보등록

전 단일화’ 약속에 걸려 양심상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훌륭한 자질의 안 후보에게도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정치를 알고 천하를 내다보는 정치멘토가 없었던 점, 조직을 너무 과소평가 한 점(정치부패를 줄이려는 배려였다 하더라도)이 우선 생각된다. ‘단일화’ 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보 등록 전’이라고 못 박음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스스로 구속 정치권에 염증 느낀 국민들 기성 정치권에 큰 충성 미래지향적 정치 교훈 삼자 당하는 경우가 됐다. 어려운 정치현실에서 정치인은 항상 ‘틈’이나 ‘되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혁신을 바라던 국민들은 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주요 정당 후보 3명의 토론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신선했던 ‘안철수 바람’은 이제 ‘얕이’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안철수 바람이 환기시켰던 그 자유로움들, 즉 과거, 정치,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좀 더 미래지향으로 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무소속 안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오랜 기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기성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1년이 넘게 지속해 온 이른바 안철수현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기성 정치권의 비아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다음달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했다. <능가경>에는 ‘능가산이 바다의 섬 한가운데 있어 접근이 어렵고, 수많은 고난을 헤쳐가야 산 정상에 올라 능가산인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능가산인 같이 새 시대를 열어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社說

‘佛文研’ 50년...관심과 박수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 연마를 위해 1962년 문을 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하 불교문화연구원)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 연구소의 개원은 불교교육과 연구가 전통 강령교육에서 벗어나 근대화가 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내 최초 인문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은 1983년 2월 연구역량을 강화해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했다. 그동안 이 곳을 거쳐간 불교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불교사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조영기 박사를 초대원장으로 김동화, 장관규, 홍정식, 김영태 등 명실공히 불교학계의 거목들이다. 반세기를 유지해 온 불교문화연구원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았다. 초창기 불문연은 재정적인 면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했다. 연구진도 동국대 교수들로만 구성돼 한계가 있

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현재는 연세대, 이화여대와 같은 타대학에도 문호를 열고 HK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계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는 눈부시다. 1963년 10월 15일 교계 최초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를 발간했다. 2001년에는 <불교원전연구>를 창간하고 단행본으로 <한국불교사상총서> 7권을 발간했다. 불교자료 정리로는 한국불교에 관한 문헌을 정리한 <한국불교전통문헌총록>을 1976년 간행했으며 이에 근거해 원효, 의상 등 한국불교 논자와 논문을 정리한 <한국불교전서> 14권을 2011년 펴냈다. 연구원이 많지 않았던 당시 한국불교의 모든 발전적 요소의 아이디어나 이념의 유일한 제공처가 바로 불교문화연구원이었다. 앞으로도 전통에만 안주하던 한국불교를 고집이 내 학술을 넘어 불교계의 변화를 이끈 촉매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스님들 정치 참여 신중해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5일 남짓 남았다. 국가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불교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불교계 지도자급 스님들이 대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주요 종단인 태고종 소속 전국보국회와 전국신도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군소 종단 모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박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스님 150여 명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매년 종교 편향이 발생하면 불교계는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낯선 비판을 정부에 쏟아낸다. 하지만 매년 대선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불교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요 종단보다는 군소 종단들의 지

지 동향 비율이 높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불교’라는 큰 카테고리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불교가 양측으로 나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이 같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공감보다는 반감을 사고 있는 듯 보인다. 적지 않은 불교계 인사들은 자칭 지도자급 스님들의 후보 지지 선언은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종교계의 정치인 공약 검증과 정책 제언에 대한 질문에 66.3%의 국민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은 종교에게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누구라도 들뜬 시기, 중심을 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국민은 종교에 원하고 있다.

사부대중 칼럼

조계종 균종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30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제44회 ‘군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2년을 마무리 하며 2013년 군포교 진흥을 위한 각오를 육·해·공군 선임법사들에게 들었다.

군승 기강 확립으로 다가올 2013년 대비



능허김승 법사 군종감(육군)

1968년 5명의 군승법사가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된 이래 군포교 현장에서는 400여 법당에 14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승들은 성직자로서, 군종장교로서 힘든 상황의 군장병들의 상담자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육군 노산훈련소 호국군무사 완공은 하나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불자들과 군승들이 일심으로 군포교를 일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포교방법 개발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간인 성직자를 비롯해 비구니 군승 파송 등 군포교 과제의 실마리가 풀릴 2013년이 기대됩니다. 군승들은 새해를 앞두고 군과 불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의 해군에 정신적 위로 주는 포교 필요



일각심학법사 해군본부 군종상장(해군)

군승 파송 44주년은 군종교구 출범 이후 종단간 연계해 큰 발전을 이뤄낸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육군 노산훈련소 호국군무사 완공에 육해공 군승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 뜻 깊습니다. 그동안 해군과 해병대는 천안함 사건을 겪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창 폐에 서있는 듯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군 군승들은 사태를 겪으며 장병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힘이 되고 위트가 되는 군포교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제주 해군기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공군사령부 법당 신축 계기로 현실에 맞는 포교전략 세워야



각원허현구 법사 계룡대 공군본부(공군)

2012년은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산육군훈련소 준공을 비롯해 공군장교와 사병들을 교육해 배출하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750석 규모의 새 법당 완공 등 외형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진 한해입니다. 7월 28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중국 성불사에서 맞은 낙성식은 공군법사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심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식 환경으로 교육사령부 내에서 법회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법사들은 외형적인 개선과 함께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세우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3년은 창공을 훨훨나는 보라매처럼 신바람으로 훨훨나는 군포교의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출연발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물 연발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성지관음회' 글쓴이: 해천법사.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루코에이 신제품.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